

‘젖잘싸’ 광주FC, “시민구단 기적은 계속된다”

2025 코리아컵 결승 전북현대전 역전 접전끝 1대2 분루

이정호 감독 퇴장·주전 골키퍼 김경민 부상 교체 ‘접착제’
끈끈한 조직력·불굴의 투혼, ‘작지만 강한 팀’ 존재감 각인

광주FC가 창단 첫 코리아컵 우승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 E) 8강 진출에 이어 코리아컵 준우승을 차지하며 시민구단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광주FC는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역전 접전끝에 전북현대전에 1-2로 패했다. 이로써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해 우승을 꿈꿨던 광주FC의 아름다운 여정은 아쉽게 막을 내렸다.

최전방에 헤이스와 프리드손을 투톱으로 배치한 광주가 초반 빌드업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후방엔 변준수, 중원엔 주세종, 전방엔 헤이스가 중심을 잡아주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헤이스와 프리드손은 1선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며 상대를 몰아세웠다. 전북 역시 김진규, 박진섭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중원을 앞세워 물리치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전반 30분을 지나며 경기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양 팀 선수들이 거친 몸싸움을 주고받으며 과열 양상으로 변했다. 40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던 이정호 감독이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연속으로 받고 퇴장당했다.

팡팡했던 0의 균형은 전반 종료 직전 깨졌다.

전반 추가시간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태현이 문전으로 공을 올려줬고, 이를 처리하려던 김경민 골키퍼와 진시우가 부딪치며 흘러나온 공을 문전에 있던 송민규가 옆으로 내쳤고 이동준이 선제골로 연결했다.

후반 7분 광주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조성권이 송민규의 드리블 돌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경민 골키퍼와 충돌했다. 통증을 호소한 김경민은 노회동과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떠나왔다.

노회동은 후반 15분 선방쇼로 실점 위기를 넘겼다. 송민규가 페널티박스에서 날린 슈팅을 쳐냈고, 재차 이어진 김태현의 슈팅마저 막아냈다. 위기를 넘긴 광주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균형을 맞췄다.

후반 25분 오른쪽 측면에서 신장무가 높이 올린 크로스를 헤이스가 문전으로 떨쳤고, 튀어오른 공을 프리드손이 방향을 바꾸는 헤더로 마무리해 골망을 갈랐다. 기세가 살아난 광주는 신장무, 프리드손 대신 최정록, 박인혁을 투입하며 역전을 노렸다.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의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치열했던 연장 전반 변수가 터졌다. 연장 전반 11분 접전 양상에서 조성권이 이승우와 경합 후 신경전을 벌이다 어깨를 밀치는 반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시상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FC의 이정호 감독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칙으로 퇴장당했다. 경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했던 분위기로 돌변했고, 수적 우위를 점한 전북이 연장 전반 추가 시간 재차 앞서가는 골을 터트렸다. 이승우가 오른쪽 측면에서 날려온 크로스를 발끝으로 밀어넣으며 다시 앞서갔다.

과열된 경기가 이어지던 연장 후반 2분 이승우가 교체 투입된 권성운을 강하게 밀어뜨렸다. 머리부터 떨어진 권성운은 몸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고, 주심은 이승우를 향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한 차례 경고가 있던 이승우는 옐로카드 두 장이 누적되며 퇴장당했다.

광주는 1-2로 뒤진 상황에서 10대10 싸움이 되자, 동점골을 넣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수비진에 최소 인원만을 남긴 채 사실상 전원 공격에 나섰지만 끝끝내 전북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더블(2관왕)을 내졌다.

한편, 이날 결승 경기에는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팬들이 원정 응원에 함께했다. 광주-서울

간 서틀버스 61대에는 1700여 명의 팬들이 탑승했으며, 광주 팬존에는 7000여 명의 팬들이 모여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노랗게 물들였다.

광주FC는 올해 이정호 감독의 리더십 아래 선수단은 끈끈한 조직력과 투혼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코리아컵 결승전에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전국 축구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희중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홍명보호,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패스D 승자와 A조

‘죽음의 조’ 피했다…관건은 빠른 현지 적응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주추첨식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패스D 승자와 A조에 편성됐다.

유럽 PO 패스D에서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한다.

체코-아일랜드 경기 승자가 덴마크-북마케도니아 경기(이상 현지시간 내년 3월 26일) 승자와 맞붙어(3월31일) 본선 진출 팀을 정한다.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한국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 추첨 결과다. 개최국 조에 속해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브라질 등 포트1의 우승 후보들을 모두 피하게 됐다.

또 포트3에서 FIFA 랭킹이 가장 낮은 남아공을 만나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다만, 어떤 유럽 팀을 만나게 될지는 PO가 열리는 내년 3월이 돼야 알 수 있다는 점은 변

수다.

유럽 PO 4개 패스 중 이탈리아가 속한 패스 A를 피한 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개최국 중 가장 걸려온 상대인 멕시코와 대결하는 건 ‘행운 중 불행’이라 할 만하다.

한국의 경기장소도 정해졌다.

우리시간 내년 6월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패스D 승자와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같은 곳에서 멕시코를 상대한다.

이어 25일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벌인다.

다른 나라를 오가지 않고 멕시코에서만 각각 3경기를 치르는 건 선수들 체력 관리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물론 1,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이 해발 1천571m에 위치해 고지대 적응은 급선무다.

3차전이 열리는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은 해발 고도는 500m이지만 6월 기온이 최고 41도까지 치솟고, 우기라 고온다습한 게 걱정스럽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만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는 것은 선수들의 체력 및 컨디션 관리 등의 측면에서 홍명보호에는 아주 큰 행운이다.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도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 이동에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멕시코에서만 조별리그를 모두 치르는 것은 A조에서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홍명보 감독은 주추첨식에 참석한 뒤 대회 기간 한국 선수단이 머물 베이스캠프 후보들을 둘러보고 귀국한다.

결국 고지대에서 치를 1, 2차전에 맞춰 고도가 베이스캠프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남아공과 시차는 없고 해발 약 1천200m 고지대에 있는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에서 열흘여 답급질을 했다.

이어 남아공 입성 후에도 비슷한 고도의 루스텐버그에 베이스캠프를 차려 대회를 치르며 원정 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룬 바 있다.

/연합뉴스



전남축구협회 U-14 대표팀이 지난 4일 해외 전지훈련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축구협회 U-14 대표팀 스페인 전훈, 글로벌 역량 강화

전남축구협회 U-14 대표팀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구단인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전남축구협회는 7일 “전남 U-14 대표팀 30여 명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스페인 빌바오 및 레사마(Athletic Club 트레이닝센터)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겸한 선진축구 시스템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소년 육성 체계를 갖춘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협업 아래 진행된다.

선수들은 빌바오 구단 코치진 훈련 세션, 유스 아카데미 시스템 방문, 프리메라리가 경기 관람, 친선 경기, 문화·스포츠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본다.

이번 해외 전지훈련은 단순 축구 기술 향상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구 문화를 직접 경험하

는 교육적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남 유소년 축구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육성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축구협회 U-14 대표팀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레사마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시설 투어와 아틀레틱 클럽 풋볼 프로젝트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식 유소년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6일에는 산 마메스(San Mames) 스타디움 투어와 프리메라리가 경기 관람을 통해 현지 축구 문화와 경기 운영 시스템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7-12일까지는 아틀레틱 클럽 코치진과의 고강도 트레이닝 세션, 현지 유소년팀과의 친선 경기, 2군 및 여자팀 훈련 관람 등 실전 중심 일정이 집중 배치돼 선수들의 체력·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

김은지, 최정 대마 잡고 불계승

오창원배, 결승 첫판 기선 제압

‘천재 바둑 소녀’ 김은지(18) 9단이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을 눈앞에 뒀다.

김은지는 7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에서 열린 제8회 오창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결승 3번기 1국에서 최정(29) 9단에게 19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김은지는 남은 2, 3국에서 1승만 추가하면 2020년 입단 이후 첫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하게 된다.

둘 가리기를 통해 백을 잡은 김은지는 중반까지 실리에서 뒤지며 불리한 형세였다.

그러나 후반 흑 대마를 공격하며 형세를 뒤집은 김은지는 최정의 착각을 틈타 우상귀 대마를 잡아 승부를 결정지었다.

김은지는 대국 후 “초반부터 계속 어려웠고 중반에는 손해를 봤지만, 후반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우승까지 한 판 남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결승 2국은 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